창립일 1967.9.17. | 제59권 48호. 2026.11.29.

* 지난주 강단제목 :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레 17:11, 히 10:14)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입례송**	오르간
★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응답송**	찬양대
★ **예배선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경배의 찬양**	6장. 목소리 높여서 / 다같이
★ **고백과 용서의 말씀**	설교자
★ **주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성시교독**	115. 구주 강림(1) / 인도자와 회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 62:10-12)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눅 3:4-6)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 다같이
중보의 기도	(1부) 이미자 장로 (2부) 김금남 장로
성경봉독	신명기 6:4-9(구약 271쪽), 로마서 8:3-4(신약 249쪽) / 인도자
찬양	(1부) 우리 함께 주 사랑을 전하리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저 하늘 위 영광 버리고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라고 간절히 당부한 모세** **-복음으로 여는 신명기-**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예수 전하세 /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 · 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박영인 장로 (2부) 최진희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렘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정은숙 집사 (오후) 양경아 권사
인도, 설교	(오전) 심한결 목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김갑례 집사 (오후) 이계옥 권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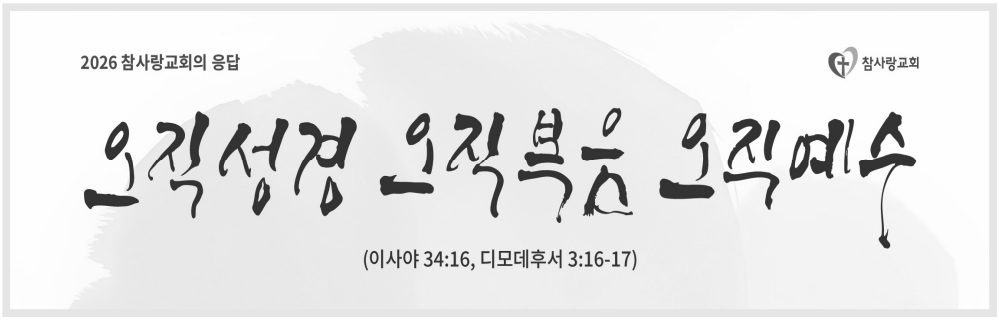
기관보고	선교국
설교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전도훈련국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오늘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렘넌트부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2. 오늘 렘넌트부서 연합예배 후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이 있습니다.
   1) 시간 : 1강(3:30-4:20), 2강(4:30-5:20). 2) 장소 : 5층 참사랑홀. 3) 강사 : 오수영 목사(지구촌선교교회).
3. 다음 주 주일(12월 6일) 오후 5시부터 4층 당회실에서 연말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후에는 저녁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당회원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본교회의 연말 일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 연말당회, 12.20 청지기임명, 12.27 졸업예배/예결산위원회, 1.3 연말제직회, 1.10 공동의회)
5. 히로시마 참사랑교회(심주환 선교사)가 교회당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지역과 일본을 살리는 일에 헌신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본교회 선교헌금계좌(신한은행 100-033-576822)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명 : OOO 일본)
6. 연말에 참사랑 렘넌트 해외어학연수가 진행됩니다.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 본교회 장학헌금계좌(신한은행 100-033-576780)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명 : OOO 어학)
7. 복음요절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영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2)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심야기도회 / 1층 비전홀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렘넌트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하셔서 줌이나 전화통화, 유투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예 : OOO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관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 12.1~3 중남미 전도집회)
2. 대학입학시험 일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 김도연, 안지훈, 문성원, 김민주, 심성하, 김주원, 양승우, 황세희)
3.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4.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렘넌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2) 트릭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5) 수묵캘리그라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렘넌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모집 중)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11) 드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중직자대학원 강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교회 3층 제2렘넌트실에서 있습니다.
3. 중남미 전도집회가 '올바른 전도운동의 시작(행1:11-14)'을 주제로 12월 1일(화)부터 3일(목)까지 콜롬비아에서 진행됩니다.
4. 제2회 북한선교대회가 '외곽을 확보하라'를 주제로 12월 8일(화) 진행됩니다.
5. 동남아시아 전도집회가 '5000 종족 살릴 주역(행2:9-11)'을 주제로 12월 15일(화)부터 16일(수)까지 필리핀에서 진행됩니다.

12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중남미 전도집회(1~3, 콜롬비아)
1주차	연말당회(6) / 제2회 북한선교대회(8)
2주차	동남아시아 전도집회(15~16, 필리핀)
3주차	청지기임명(20), 크리스마스 콘서트(24), 성탄절예배(25) / 237화요제자훈련(22, 덕평 RUTC), 렘넌트데이(26)
4주차	졸업예배, 렘넌트부서연합예배, 예·결산위원회(27), 송구영신예배(31) / 원단기도회(31~1.1)

12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임근일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이명 김영진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6층) 박동영 최명홍
안내위원	(위원장) 최칠규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핑센터, 노인정 등)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묵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묵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헌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아 유경형-라종화 주재잔-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화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종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윤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염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님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혜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헌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칠규 한영화 장영호 여준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종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화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님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순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서-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라종화 주재잔-권혜경 이수용-이미자 오국환-이은희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백소정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한-임경미 김경희 배승찬-이 명 양경심 임근일-양은숙 최칠규-한영화 여준석-양경아 최신혜 김금남 유승범-주은경 김영잔-최혜숙 김순호 이명재-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윤 이순덕 강공이 김희권 김미자 주예진 최송화 김일호 조성균-김갑례 김주영 이영순 정향란 이순근 박인자 최재경 김순자 나경철-신현식 김용관-김정순 김춘례 임영순 손병순-박정수 김영순 유제숙 김정연 김경애 박숙자 윤순옥 정민호-이서은 김명철 장유미 임혜연 정재환 안나근 정문철 이선아 박주은 정수환 임혜미 고경훈 이민형 김태운 이상구-이정미 정재환 김지수 최영국-김윤지 조현지 송길호 양은숙 김창균-임예진 이연균 고진순 이민수 김숙희 유영석 한경숙 김지후-이현주 유승환-최아현 이효숙 박찬열 조부영 김영희 채송아 안선희 방주은 여 명 무명15
십 일 조	정윤돈 김수진 이영순 유충현-강공이 정향란 임영순 유제숙 안나근 정문철-이선아 김영진 고경훈 김순호 임혜미 임예진 박찬열 김금남 김영희 홍경아 박난순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송화 김계자-강양금 박학규 유경선 김미자 양경심 김 헌 정민호-이서은 정문철 이선아 윤태자 최신혜 이은숙 박영인 김지후-이현주 유경형-라종화 이계옥 박동영-최진희 홍경아 무명
추수감사	손병순
심방헌금	지복순-임상식-임민재
차량헌금	정윤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정윤돈 이은희 임영순 이영순 정문철-이선아 정수환 김순호 고경훈 방주은 유승범-주은경 박동영-최진희 박찬열
히로시마 참사랑교회 이전 헌금	정윤돈 김원일-전인숙 김진아 김미자 양은숙 주재진 권혜경 노은현 정년영 김순호 최신혜 김경애 정향란 김금남 임영순 김갑례 이은희 고진순 배준서 박지영 정민호-이서은 임혜연 임혜미 유승범 전 진 김지수 최명홍 김숙희 유영석 김창균-임예진 유경형-라종화 오국환 조부영 송영희 채송아 무명5
치유센터	정윤돈 정민호-이서은 정수환 (*2026년도 총계 635,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헌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김계자 임영순 강공이 정문철-이선아 정수환 방주은 김순호 유승범-주은경 박동영-최진희 박찬열 무명2
장학헌금	정윤돈 박범서-김진아 김원일-전인숙 이영순 여동훈-백소정 정문철-이선아 정수환 김순호 유승범-주은경 박지영 박동영-최진희 여 명
어학연수	정윤돈 정수환
RUTC헌금	정윤돈 박범서-김진아 정수환 정문철-이선아 박동영-최진희 조부영 김영희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11. 18.~ 2026. 11. 24.)

헌당헌금 (2026년도 합계)	141,693,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1,03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13,557,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2,467,000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2,000,000엔 (한화 3,757,000,000원 / 100엔환율=8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윤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전도인	구역(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최진희	①요금1(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윤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산주 최해나
	②요금2(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윤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이미자	③방이1(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김홍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남호정
	④방이2(최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욱현 최모연 박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정순A 최종헌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윤우
	⑤천호(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김금남	⑥잠실(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혜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이준영 강정자 **최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김지유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정협 스모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이정택 이은선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에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웅연 이재윤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웅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지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능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윤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둘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림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빈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율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 심한결 목사 | 총무 : 양경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 이현규 목사 | 총무 :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헌**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이은숙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양순옥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헌)	장길순	이영순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윤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염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김순호A**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휘 권혁복 조동범 이세호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윤A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송영희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지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율 백하율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지아 김도연 문성원 안지훈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언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을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정열 김윤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김순호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박천재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정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예 신현욱 신지유 **장영균**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나주희 나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웅 김정순B 유정빈
	㉑가락 (정연규)	백소정	정선희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언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이군재**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언 심지언 심승언 정향란 이민수 김숙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숙현 함재이 오인태 김지영B 오하림 오하윤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히브리서–

레위기 17:11, 히브리서 10:14

들어가는 말씀 – 피 제사의 의미와 유대인 복음화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이 매달 이스라엘에 선교를 다녀왔다. 러시아어 통역을 하는 선교사님도 이스라엘에 계속 가시고, 러시아권에서 사역하는 정문식 선교사님도 그곳으로 가시기에 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이스라엘에 자주 가시는지 물었다. 러시아에서 오래 살아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이주해 왔고, 그중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현장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땅끝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함께 가기로 약속했는데 전쟁 때문에 선교 일정이 중단되었다. '사탄이 유대인 복음화를 막는가,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는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237나라 5천 종족의 마지막 현장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유대인 복음화도 중요한 사명이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족 유대인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도 유대인이었고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을 통해 시작되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갈등과 핍박을 받았지만 바울은 동족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히브리서를 알면 유대인에게 전도할 뿐 아니라 우리도 복음과 믿음을 깊이 깨닫는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짐승을 드리는 여러 제사와 절기제도가 있었다.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등에서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렸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한다. 제사장이 소와 양을 잡을 때 목을 베고 각을 뜨면 아무리 조심해도 피가 튀고 옷에 묻었을 것이다.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서 피 냄새가 나고 피의 흔적이 보였을 것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는가? 실제 피가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보혈과 향기와 빛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음 대신 불평과 정죄만 보일 때가 있다. 피 제사는 짐승을 잡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많은 사람은 제사의 겉모습과 자기 민족의 전통에 머물렀다. 우리도 복음을 놓치면 똑같아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죄와 자범죄, 과거·현재·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내 죄와 남의 죄까지 깨끗하고 영원히 해결하셨다. 단번에 끝내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하며 사람을 정죄한다.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메시지에 순종하는지는 돌아보지 않는다. 사람을 살려야 할 전도자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지각하지 않고 숙제를 해 가는 성실한 편이었다. 공부를 아주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강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보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적인 체질이 있었다.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야 한다. 전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과 생활규례를 지키며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현대 문명과 거리를 두고 전통적인 검은 옷차림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론 –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 박해와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저자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 성막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그 제도는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당시 전통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다.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도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다. 이들은 구약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깨닫고 재해석하고 확신을 가져야 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바울, 바나바, 아볼로 등 여러 인물이 거론된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렇지 않다.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라 박해를 염두에 두고 이름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약을 이처럼 깊이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바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약의 의미를 알려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성지순례 때 유대인 열 명쯤 모여 성경을 외우는 모습을 보았다. 초등학생 한 명만 책을 보았고 나머지는 외우고 있었다. 얼마나 구약을 열심히 암송하는가? 그러나 말씀을 많이 외워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렇다고 한 번 듣고 끝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성경을 읽고 구원의 길을 묵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로 금방 돌아간다.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유대인 복음화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한다. 구약의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고 대제사장에게만 특별한 접근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다. 고대 근동의 신화를 읽으면 신들 사이에도 서열과 문지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힘이 약한 신이 높은 신을 만나러 가는데 문지기가 막고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고, 문지기는 높은 신에게 가서 말을 전한 다음 대답을 받아 다시 돌아온다. 그 과정에서 같은 말을 세 번씩 반복한다. 옛 서사시를 읽다보면 이런 장면이 거듭되어 읽기가 지루할 정도였다. 신조차도 마음대로 다른 신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리스·로마 신화나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욕심을 드러내는 이야기들도 많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고대 문헌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경이 다른 고대 문헌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의 특별함은 그들도 모두 다른 고대 근동 신화와 다르고 특별한 점이라 동의하는 바이다.

1. 우월하신 그리스도

1)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 지나치게 높이 생각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 천사들이 기도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거나, 천사를 인간과 선지자보다 높은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천사보다 낮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며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천군천사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한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율법주의로 돌아가기 쉽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야 한다. 어제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나도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한다. 237나라를 살린다고 모두 직접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간다. 나도 이스라엘 선교에 가려 했지만 전쟁으로 문이 닫혔다. 성지순례는 의미가 있지만 예루살렘 계단을 오르고 베들레헴과 갈릴리를 둘러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곳에 사는 러시아어 사용 유대인과 전통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땅끝 복음화, 유대인 복음화가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한다.

2)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심을 말씀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유대인에게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율법을 받았으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한 지도자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집을 섬긴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위대하신 분인지 분명히 보여 준다.

3) **그리스도는 아론과 대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한다. 왜 굳게 잡으라고 하셨을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으며,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었다. 고난이 있으니 복음과 언약이 흔들릴 수 있었다. 그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야말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한다. 광야와 포로생활, 노예와 속국의 역사를 지나오며 기대했던 구원의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예루살렘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4)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설명한다. 히브리서 7장 7절에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는 말씀이 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는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은 큰 충격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진 전통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을 바르게 정리하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십수 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노방전도캠프를 하다가 유대인 초등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다. 렘넌트가 통역해 주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려고 했다. 그때 중간에 와서 이야기를 듣던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저도 영접해도 되나요?"라고 물었다. 이미 말씀을 들었으니 함께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다시 조심스럽게 "저는 유대인인데 괜찮아요?"라고 질문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으니 괜찮다고 말해 주었다. 그 아이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가지고 유대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의로운 종이 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예언했는가? 그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튜브에서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을 만나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설명했고, 어떤 사람은 랍비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답을 유보했다. 성경을 쉽게 해석하지 말라고 배웠다는 사람도 있었다. 유대인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모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곧 메시아닉 쥬들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들을 살리고 히브리서를 통해 복음을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5)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했다. 소와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또 죄를 범하면 다시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

서 9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며 모든 제사의 실체이시다. 히브리서의 앞부분은 천사, 모세, 아론과 대제사장, 아브라함, 구약의 제도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신 분임을 증거한다. 옛 언약에는 땅과 자녀, 가나안과 축복에 관한 약속, 율법과 성막과 제사가 있었다. 제사 현장에서는 양과 소가 죽고 희생제물을 계속 드렸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옛 제사의 반복을 끝내고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2. 히브리서에 담긴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

1)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모습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한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일곱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 첫째,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라고 말씀한다. 상속자는 모든 것을 이어받아 소유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최종적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속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상속을 받으려면 유산을 남긴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늘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느 통장에 있는지 몰라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찾아 누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1억 달러 수출을 기뻐하던 때가 있었고 어린 시절에는 100억 달러 수출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APEC정상회의에서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다. 나라와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은 자랑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주신 기회이다. 지금 있는 현장부터 살려야 한다. 왜 먹고 마시고 직장에 다니며 공부하는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야 한다. 지나가는 문제에 속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마6:33)

(2) 둘째,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창조의 주인이시다.

(3) 셋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4) 넷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5) 다섯째,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지금도 우주만물을 운행하시고 붙드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신다. 모든 생명과 만물이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다.

(6) 여섯째,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신 분이다.

(7) 일곱째,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한다.

2) 히브리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 준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다. 오늘날 유대인 가운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성적이고 철학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중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목사님은 철학과 신학을 깊이 공부하신 분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연세대학교에서도 신학과 철학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그분과 다른 목사님들이 함께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강의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필요한지, 철학과 신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말씀을 주실 예정이다. 깊이 질문할 때 "그리스도면 끝이지"라는 답만 듣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을 통해 깊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지구와 우주의 근원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까지 예비하셨음을 믿고, 세상적으로 똑똑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살려야 한다.

3) 그리스도는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말씀한다. 안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쉼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영육 간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노예생활이나 광야생활 같은 어려운 환경, 경제문제와 건강문제, 가족과 사회와 교회의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붙잡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없었던 일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완전히 눌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는 뜻이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다(살전5:16-18). 건강하거나 돈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눅16:19-31)를 보아도 세상 형편이 영원한 결론을 결정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병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안식을 누리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 일하지 않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가? 복지사회가 발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복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보장할 수 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 AI시대에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고 편리함이 커져도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시험에서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일이 문제가 된다. 돈은 경제적인 안식을, 복지는 생활의 안정을, AI는 편리함을 주지만 영적 안식과 영원한 천국의 안식은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중독자가 술과 담배, 도박과 게임을 조금씩 줄이겠다고 해도 계속 붙잡혀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에도 중독된 것처럼 살아간다.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여 끊어야 한다. 불신앙과 원망의 체질에서 나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19:30)"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라고만 말한다.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고 안식해야 한다.

4) **그리스도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한다.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인간의 노력만으로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문제, 죄문제, 죽음문제, 심판문제, 지옥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5) **그리스도는 율법의 참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며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한다.(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유대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죄 문제를 해결 받았습니까? 천국 갈 확신과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구약 제도가 그림자이며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라고 말한다.

6)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한다. 한 번의 제사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다른 제물을 반복해서 드릴 필요 없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믿어야 한다.

7)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충성된 제자였다가도 원망하고 낙심하며, 약속했다가도 쉽게 마음을 바꾼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포기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붙잡아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8)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어서 지도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한다. 지금까지 말씀한 축복을 누리는 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을 따라갔으며 이삭도 믿음의 길을 걸었다. 내 생각과 고집, 자존심과 이익만 붙잡으면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입장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결론

구약의 제사와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리스도는 천사와 모세, 아론과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시며 모든 제사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원한 속죄와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237나라 5천 종족에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체능체험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묵캘리그라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렘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본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 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캠프)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헌 여준석 김경화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선옥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램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램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 오후 7:30				
금요심야기도회	금 오후 8: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램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램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참사랑교회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고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성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회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광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워싱턴) ⑳ 이응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㉓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고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교회 역사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북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60여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